

[증권/보험 주간동향]

이벤트가 가득한 한주,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18.06.04(월)~18.06.08(금)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W	1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452	1,520,943	1.1	10.0	11.5	0.5	0.1	0.8	-0.5	-0.6	-530	278	41	1,673	10,162
KOSDAQ	878	169,205	2.7	19.3	14.4	-0.5	6.2	2.9	18.1	10.0	-105	10	5	448	2,737
보험	18,429	21,308	0.7	12.0	5.9	2.1	-4.3	-9.6	-12.5	-12.8	-1	16	-4	20	152
증권	2,150	22,365	0.9	10.1	9.5	2.0	0.7	2.9	4.4	8.2	25	10	25	29	166
삼성생명	104,500	20,900	0.6	13.5	4.7	2.0	-7.1	-12.2	-15.7	-16.1	-21	16	-7	5	49
한화생명	5,630	4,890	0.6	8.2	6.4	1.1	-5.7	-12.3	-21.0	-18.5	-1	-2	-1	1	11
ING생명	41,650	3,415	0.9	9.5	9.7	3.1	-1.3	-16.5	-22.7	-22.0	2	-1	1	0	10
동양생명	7,140	1,152	0.5	7.7	6.1	-0.3	-6.5	-1.2	-9.3	-6.1	-1	-0	-0	0	3
삼성화재	261,500	12,389	1.0	12.3	8.3	3.0	-3.7	-6.3	-0.6	-2.1	2	3	-3	6	33
DB손해보험	61,100	4,326	0.8	6.0	13.7	4.4	-0.7	-10.5	-11.1	-14.2	3	1	3	3	16
현대해상	35,350	3,160	0.8	5.5	15.4	2.3	-6.0	-6.7	-21.2	-24.8	3	-1	0	2	15
메리츠화재	20,400	2,251	1.1	6.6	18.2	1.7	-1.0	-7.3	-15.9	-13.2	2	-3	1	0	4
한화손해보험	6,800	794	0.6	4.7	13.3	-2.7	-2.6	-18.7	-18.5	-16.5	-0	-1	-0	1	2
삼성증권	37,500	3,349	0.7	7.5	9.6	3.6	4.0	-4.5	4.0	2.5	4	9	6	5	27
미래에셋대우	9,460	6,303	0.8	9.3	9.0	1.9	-1.9	2.5	-10.3	2.9	4	3	4	11	51
NH투자증권	16,400	4,615	1.0	10.2	9.7	3.8	5.5	15.5	19.7	18.0	13	1	12	6	30
한국금융지주	94,200	5,249	1.3	8.8	15.2	-0.3	6.9	22.2	36.9	36.5	1	-1	0	6	29
키움증권	120,000	2,652	1.4	9.3	17.9	-4.0	1.7	17.6	46.9	37.0	-0	-4	-1	4	30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저점에서 반등에 성공하였음. 미국 기준금리 인상,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및 유럽금리가 상승하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주가 하락에 따라 높아진 배당수익률과 2분기 실적이 1분기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4월 가마감 자동차손해율 언론보도: 삼성화재 80.3% (1Q18: 81.4%), DB손해보험 82.4% (1Q18: 85.4), 현대해상 80.7% (1Q18: 80.4%), 메리츠화재 76.7% (1Q18: 78.8%), 한화손해보험 78.5% (1Q18: 82.1%)														
	▶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 내달 공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에 대해 KDI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결과는 7월 발표 예정. 이를 통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하여력 검토할 계획. 다만 구체적인 수자 도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내 요율 반영 미지수. 매년 급여화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복지부와 의협 갈등으로 올해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증권	증권업종 강세 시현: 높은 수준의 거래대금 및 ELS 조기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음. 다만 금리에 대한 불안요인이 남아 있으며 일부 신 흥국의 환율 및 금리 부분에서의 불안요인이 반영되어 주가는 시장 환경대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NH투자證 첫 발행어음 금리 한투 넘을 듯: NH투자증권이 판매할 발행어음 금리 1년 만기 기준 연 2.4% 이상 유력.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금리는 연 2.3%임.														
	▶ 카페24 신주인수권 행사로 미래에셋대우 평가익: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의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평가차익 얻어. 미래에셋대우의 행사주식수는 5만 7000주로 지난 금요일 종가기준 66억원 평가차익 발생.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누계		2Q17	3Q17	4Q17	1Q18	2Q18 누계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KOSPH+KOSDAQ	13.1	44.9	15.8	13.0	12.4	14.3	15.0	13.5	-10.2	8.9	8.2	11.8	13.8	14.5	5.0
KOSPI	7.6	42.2	7.1	6.9	6.9	7.8	9.1	7.8	-13.5	5.6	5.2	6.0	7.0	8.4	19.7
KOSDAQ	5.5	48.7	8.7	6.2	5.5	6.5	5.9	5.6	-5.0	3.2	3.0	5.8	6.8	6.2	-10.0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KOSPH+KOSDAQ	12.6	27.5	11.3	11.2	11.3	12.2	12.5	12.6	0.6	8.5	8.3	9.9	11.3	12.6	10.9
KOSPI	6.3	39.7	4.8	5.3	5.4	6.0	6.2	6.3	1.2	4.2	4.0	4.5	5.4	6.3	15.8
KOSDAQ	6.3	17.4	6.5	5.9	5.9	6.2	6.3	6.3	0.1	4.4	4.3	5.4	5.9	6.3	6.4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1년	1.85	2.6	1.84	1.84	1.89	1.85	1.85	1.85	-0.3	1.47	1.53	1.85	1.89	1.85	-4.3
3년	2.21	9.7	2.27	2.27	2.22	2.22	2.20	2.21	1.7	1.70	1.89	2.13	2.22	2.21	-0.5
5년	2.52	18.7	2.57	2.52	2.43	2.49	2.48	2.52	4.5	1.90	2.08	2.35	2.43	2.52	9.7
10년	2.75	26.0	2.77	2.74	2.62	2.72	2.70	2.75	5.7	2.21	2.37	2.47	2.62	2.75	13.0
악정 MS	%	17년대비. %p							%	%p					%
삼성증권	6.1	0.1	6.5	5.8	6.2	6.4	6.1	6.2	0.1	5.9	6.2	6.0	6.2	6.2	0.0
미래에셋대우	12.6	0.0	13.6	13.2	13.1	13.2	12.8	12.6	-0.2	12.5	12.7	13.2	13.3	13.0	-0.3
NH투자증권	6.2	0.2	6.4	6.1	6.3	6.4	6.4	6.3	-0.1	5.9	5.7	6.4	6.3	6.4	0.1
한국금융지주	5.1	-0.7	5.9	5.5	5.5	5.5	5.2	5.1	-0.1	5.7	6.1	5.8	5.7	5.3	-0.4
키움증권	18.8	2.3	17.7	17.5	17.1	18.5	18.2	19.2	0.9	16.0	15.3	17.4	17.5	18.4	0.9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금주에는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 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채권매입규모 축소에 대한 구체적 힌트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북미정상회담과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지만 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으로 ECB의 통화정책회의 역시 구체적 내용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출구 전략 추진에 대한 지속성만 확인된다면 시장의 큰 충격 없이 금리의 우상향 상승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금주 보험업종은 지난주 시작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바탕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되며 때문임														
▶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보험업종에 대한 컨센서스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문케어 관련한 반사 이익 또한 현실적으로 구체적 수자가 제공되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측면의 감소만 선행되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에 대비해 긍정적인 관점															
증권															
▶ 금주 금리와 관련하여 증권업종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전주 일평균거래대금이 13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ELS 조기상환은 지난해 4분기 밸런스를 3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증권업종은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다만 거래대금 및 ELS 조기상환이 2분기 이후 peak out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추가 상승을 누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중에는 peak out에 대한 우려보다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기대감 증가로 어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따라서 금주 증권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우리는 지난주 증권업종 커버리지를 개시하였으며 한국금융과 NH투자, 삼성증권에 대해 Buy 투자의견을 미래에셋대우와 키움 증권에 대해서는 Hold 투자의견을 제시하며 커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6월 14일	미국	FOMC 회의/금리결정	%	1.75 2.00
6월 14일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금리결정	%	0.00 0.00
6월 15일	유로존	BOJ 금리결정	%	-1.10 -1.10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06/04 (월)	▶ 진입장벽 낮춰 신규 재보험사 허용…기업보험 다양화도 추진 (연합뉴스) 금융당국, 손보사의 재보험사 의존도 줄여 기업성 보험 가격 경쟁 유도. 재보험사로 100% 넘기지 못하게 보험위험의 10% 최소보유비율 도입.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참조 요율) 범위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 NH투자證 첫 발행어음 금리 한투 넘을 듯 (서울경제) NH투자증권이 판매할 발행어음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연 2.4% 이상 유력.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금리는 연 2.3%임.
		▶ '테슬라 상장' 카페24 신주인수권 행사로 미래에셋대우·유안티證, 100억 평가의 (한국경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의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티증권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평가차익 얻어. 미래에셋대우의 행사주식수는 5만 7000주로 지난 금요일 종가기준 66억원 평가차익 발생.
		▶ 방카도 보장성보험이 대세…빅3 생보사만 여전히 저축성 고집 (연합인포맥스) 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방카) 채널에서도 보장성 보험 판매에 강한 드라이브. 빅3 생보사 등 대형 보험사들은 여전히 방카에서 저축성 보험을 고집
	06/05 (화)	▶ [단독]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추가자본 확충 '불필요' (조선비즈) 금융당국, 금융그룹 7곳 대상 실시한 모범규준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자본 확충 필요한 금융그룹은 없는 것으로 보도됨
		▶ CMA도 고금리 발행어음에 투자 (파이낸셜) 발행어음형 CMA 급증세. 은행에금금리보다 높아 5월까지 6600억원 육박.
		▶ 미래에셋, 베트남 2위 제약사 2대주주 됐다 (머니투데이) PEF로 베트남 2위 제약회사 지분 25% (900억원) 인수, 2대주주로 올라서
		▶ KDB생명, 2500억 후순위채 발행 결의…자본확충 마무리 (머니투데이)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판매제한 해제 긍정 검토, 하반기 수익성 회복 '틀인'… "고금리 이자부담은 우려"
	06/07 (목)	▶ [단독] '문재인케어'로 얻는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 내달 공개(머니투데이) KDI연구용역 결과 7월 발표 예정… 매년 금여화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복지부·의협 갈등으로 올해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숫자 도출 어려울 듯. 연내 요율 반영 미지수.
		▶ 중기특화증권사, NCR 규제 개선으로 대출부담 완화 (이데일리)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주요 내용은 1)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 벤처 등에 대출하는 경우 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등급따라 0~32%만 종위험액에 가산. 2)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방식 개선 등
		▶ 금감원,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7월 중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재심에 삼성증권 안건 상정될 듯. 최근 삼성증권에 조치 사전통지서 발송.
	06/08 (금)	▶ 자동차 보험 출혈경쟁 심화… 손해율 80%대 치솟아(디지털) 4월 가마감 자동차손해율 삼성화재 80.3% (1Q18: 81.4%), DB손보 82.4% (1Q18: 85.4), 현대해상 80.7% (1Q18: 80.4%), 메리츠화재 76.7% (1Q18: 78.8%), 한화손보 78.5% (1Q18: 82.1%)
		▶ 동양생명 "최대주주 지분매각 결정된 바 없어" (이투데이)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 계획상 최대주주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7일 공시
		▶ NH투자증권, 현대제철 2592억 규모 블록딜 추진 (EBN) NH투자증권이 현대제철 지분 400만주(2.99%)에 대한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를 추진. NH투자증권은 현대제철 지분 5.69%(751만주)를 보유.
발간자료		▶ 증권업 [Initiate, Overweight]: 대형화 효과는 아직 낮음. 기대는 유지 http://bit.ly/2MbwijsW 모멘텀 퍼포먼스에 대한 우려 존재하나, Trading 및 IB 부문에서 우려 완화시킬 수 있으며, 대형 증권사에 기회요인 존재. 증권사 주가 결정요인은 ROE, 수익성과 위험관리 확인 필요 최선호증권 한국금융지주 제시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452		1.1	10.0	11.5	3.1	0.5	0.1	0.8	-0.5	-0.6
	보험	18,429		0.7	12.0	5.9	0.6	2.1	-4.3	-9.6	-12.5	-12.8
	삼성생명	104,500	19.4	0.6	13.5	4.7	0.5	2.0	-7.1	-12.2	-15.7	-16.1
	한화생명	5,630	4.5	0.6	8.2	6.4	0.4	1.1	-5.7	-12.3	-21.0	-18.5
	ING생명	41,650	3.2	0.9	9.5	9.7	1.1	3.1	-1.3	-16.5	-22.7	-22.0
	동양생명	7,140	1.1	0.5	7.7	6.1	0.5	-0.3	-6.5	-1.2	-9.3	-6.1
	삼성화재	261,500	11.5	1.0	12.3	8.3	1.3	3.0	-3.7	-6.3	-0.6	-2.1
	DB손해보험	61,100	4.0	0.8	6.0	13.7	1.3	4.4	-0.7	-10.5	-11.1	-14.2
	현대해상	35,350	2.9	0.8	5.5	15.4	1.2	2.3	-6.0	-6.7	-21.2	-24.8
	메리츠화재	20,400	2.1	1.1	6.6	18.2	1.8	1.7	-1.0	-7.3	-15.9	-13.2
	한화손해보험	6,800	0.7	0.6	4.7	13.3	1.1	-2.7	-2.6	-18.7	-18.5	-16.5
	증권	2,150		0.9	10.1	9.5	1.0	2.0	0.7	2.9	4.4	8.2
	삼성증권	37,500	3.1	0.7	7.5	9.6	1.1	3.6	4.0	-4.5	4.0	2.5
	미래에셋대우	9,460	5.9	0.8	9.3	9.0	0.8	1.9	-1.9	2.5	-10.3	2.9
	NH투자증권	16,400	4.3	1.0	10.2	9.7	1.1	3.8	5.5	15.5	19.7	18.0
	한국금융지주	94,200	4.9	1.3	8.8	15.2	1.2	-0.3	6.9	22.2	36.9	36.5
	기업증권	120,000	2.5	1.4	9.3	17.9	2.6	-4.0	1.7	17.6	46.9	37.0
일본	Nikkei225	22,695		1.7	16.5	10.2	1.9	2.4	-0.3	5.7	-1.1	-0.3
	보험	1,054		0.8	11.4	7.1	0.6	2.5	-0.2	9.0	0.1	-0.6
	Dai-ichi Life Holdings	3,835	24.8	2.1	44.7	4.7	2.6	4.7	-0.3	3.1	40.2	30.6
	Japan Post Insurance	2,480	13.6	0.7	16.3	4.6	0.1	1.3	-5.5	-5.6	-5.5	-6.4
	Tokio Marine Holdings	5,452	37.2	1.0	14.9	7.3	1.1	2.9	4.0	10.4	8.3	6.0
	증권	410		0.8	9.7	8.4	0.6	0.3	-3.9	-2.9	-4.3	-5.7
	Nomura Holdings	575	19.1	0.7	8.0	9.0	0.6	0.7	-4.8	-9.0	-13.4	-13.5
	Daiwa Securities	645	10.0	0.8	9.9	8.6	0.6	0.8	-1.6	-5.3	-7.1	-8.8
	SBI Holdings	2,881	5.9	1.4	12.6	11.9	1.2	-1.6	-0.6	10.8	32.5	22.3
중국/홍콩	Hang Seng	30,958		1.3	12.1	12.8	1.1	1.5	-0.5	-0.1	6.9	3.5
	상해A주 지수	3,212		1.4	12.0	12.1	1.2	-0.3	-3.0	-7.3	-7.7	-7.3
	보험	164		1.3	11.7	11.1	1.8	3.3	0.2	-9.2	-9.4	-9.1
	China Life	23	101.2	1.4	12.3	12.6	1.5	3.4	1.1	-1.7	-7.5	-7.1
	Ping An Insurance	79	180.0	2.1	11.7	19.4	1.6	1.5	2.3	-6.9	0.4	-3.2
	AIA	72	110.7	2.4	19.3	13.0	2.6	1.4	3.2	9.0	16.4	8.0
	증권	106		1.2	16.1	8.0	51.8	-2.7	-10.4	-14.8	-20.6	-16.0
	CITIC Securities	19	34.1	1.2	14.9	8.6	2.1	-1.9	1.0	5.9	18.3	19.5
	Haitong Securities	10	17.3	0.7	9.9	7.6	1.7	-0.2	-7.1	-12.6	-13.2	-13.8
	Huatai Securities	15	17.6	0.9	11.1	8.8	2.0	-0.9	-3.4	-5.9	-1.7	-2.3
미국	S&P500	2,779		3.2	17.5	18.6	3.5	1.6	1.9	-0.3	4.5	3.9
	보험	388		1.3	12.0	11.1		1.8	0.5	-4.5	-4.6	-3.4
	AIG	55	49.5	0.8	11.3	6.7	0.9	3.4	4.4	-2.6	-7.4	-7.5
	Metlife	47	48.2	0.9	9.3	10.3	0.7	1.6	1.8	-0.9	-11.8	-6.2
	Prudential Financial	101	42.2	0.9	8.2	11.6	0.6	1.7	0.4	-8.8	-14.2	-12.6
	증권	213		2.3	15.6	12.8	1.4	2.4	0.6	-3.8	5.0	5.2
	JP Morgan	111	378.3	1.6	12.4	13.4	1.2	2.5	-2.0	-5.9	4.9	3.9
	Goldman Sachs	233	91.6	1.2	10.1	12.2	1.0	2.2	-3.5	-13.8	-6.8	-8.4
	Charles Schwab	58	77.9	4.3	23.7	19.1	1.3	1.8	-1.7	0.1	12.3	12.4
유럽	MSCI Europe	130		1.8	14.5	9.9	1.0	-0.5	-1.9	1.9	-1.2	-1.2
	보험	74		1.1	10.6	11.7	0.5	-1.3	-5.8	-3.7	-3.7	-3.7
	Allianz	179	92.6	1.1	10.3	11.4	0.8	-0.6	-10.1	-6.0	-10.3	-6.7
	AXA	22	62.3	0.7	8.4	8.7	0.5	-0.1	-2.4	-3.1	-13.7	-11.9
	Prudential plc	1,836	63.8	2.7	12.6	21.0	0.6	-0.2	-5.1	-0.6	0.1	-3.6
	Munich Re	179	31.5	1.0	10.8	9.0	3.6	-1.1	-7.1	-3.2	-3.2	-1.1
	증권	72		1.1	14.4	6.9	0.6	0.3	-6.6	-6.7	-7.7	-8.6
	UBS	15	59.6	1.1	11.1	9.4	0.9	-1.1	-4.7	-12.6	-8.0	-12.6
	Credit Suisse	15	39.4	0.9	12.6	7.2	0.4	-1.4	-9.6	-10.6	-10.3	-11.4
	Deutsche Bank	10	23.2	0.3	19.1	1.6	0.3	1.5	-17.2	-26.7	-42.1	-39.8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39	1,842	1,890	1,891	1,833	1,853	-0.3	-5.1	-5.2	0.6	-1.4
		3 Year	2,180	2,187	2,302	2,285	2,095	2,134	-0.7	-12.2	-10.5	8.5	4.6
		5 Year	2,472	2,482	2,575	2,515	2,293	2,347	-1.0	-10.3	-4.3	17.9	12.5
		10 Year	2,707	2,702	2,775	2,730	2,487	2,467	0.5	-6.8	-2.3	22.0	24.0
일본	국고채	1 Year	-0.130	-0.140	-0.128	-0.153	-0.157	-0.145	1.0	-0.2	2.3	2.7	1.5
		10 Year	0.047	0.048	0.053	0.054	0.053	0.048	-0.1	-0.6	-0.7	-0.6	-0.1
중국	국고채	1 Year	3,210	3,171	2,906	3,283	3,779	3,834	3.9	30.4	-7.3	-56.9	-62.4
		10 Year	3,657	3,645	3,700	3,852	3,945	3,902	1.2	-4.3	-19.5	-28.8	-24.5
미국	국고채	1 Year	2,282	2,257	2,238	2,032	1,655	1,732	2.6	4.4	25.0	62.7	55.1
		10 Year	2,946	2,902	2,976	2,857	2,376	2,405	4.4	-3.0	8.9	57.0	54.1
유럽	국고채	1 Year	-0.577	-0.536	-0.558	-0.574	-0.637	-0.611	-4.1	-1.9	-0.3	6.0	3.4
		10 Year	0.449	0.386	0.561	0.628	0.307	0.427	6.3	-11.2	-17.9	14.2	2.2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개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우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중립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